

8kg 감량...박석민의 절치부심

19경기 타율 0.291 5홈런...NC 이적 첫해 페이스 덕아웃 리더 역할도...강진성 "석민이 형 고마워"



박석민

"잘할 때 써주시면 안 되나..."

2월초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만났을 당시 박석민(35·NC 다이노스)의 이야기는...

정중히 답했다.

그도 그럴 것이 박석민은 2016시즌에 앞서 NC와 4년 총액 96억 원에 프리에이전트(FA) 계약을 했다.

4년 계약 만료 후 올 시즌에 앞서 NC와 다시 '2+1년 최대 34억 원'에 2번째 FA 계약을 마쳤다.

많은 거지말을 하지 않는다. 박석민은 27일까지 19경기에서 타율 0.291, 5홈런, 10타점을 기록 중이다.

여기에 특유의 덕아웃 리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. 올 시즌 대타로만 3홈런을 때려낸 '미스터 클러치' 강진성은...

30대 중반. '에이징 커브'상 하락세가 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. 하지만 박석민은 팀의 힘을 믿었다.

창원 |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선두 NC vs 꼴찌 SK...완벽한 데칼코마니 보여준 성적표



NC와 SK는 올 시즌 초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. NC는 16승3패로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반면 SK는 3승16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.

16승3패 vs 3승16패...용, 용 죽겠지?

(27일 현재)

(공룡군단 NC) (비룡군단 SK)

NC, 역대 최단경기 15승 돌파 팀 평균자책점·홈런 1위, 연패 무이동욱 감독 "승리도 습관" 흐뭇

완벽한 데칼코마니다. '공룡군단' NC 다이노스가 16승3패로 단독선두를 질주 중인 반면 '비룡군단' SK 와이번스는...

●승리, 공룡군단의 습관이 되다!

NC는 KBO리그 역대 최단경기 15승 돌파(18경기) 기록을 세우는 등 시즌 초반 무섭게 치고나가고 있다.

시작 전부터 현장과 프런트 모두 "올해는 대권 도전이 목표"라고 외쳤던 자신감은 허언이 아니었다.

전력 자체가 탄탄하다. 팀 평균자책점(ERA·3.18)과 홈런(27개)에서 1위에 올라왔다.

팀 분위기는 자연히 올라간다. 이동욱 NC 감독은 "승리도 습관이다. 주축 선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니 후배들도 그 흐름을 따라간다"며 "감독으로서 고마울 뿐"이라고 밝혔다.

경향이 많았는데, 올해는 다르다"며 "상대 팀에 '재난 진자 까다롭다'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목표"라고 말했다.

●졸부상, 비룡의 날개를 꺾다!

SK는 총체적 난국이다. 지난해 정규 시즌에서 게임차 없이 상대 전적 때문에 2위로 밀린 팀의 위용은 오간데 없다.

핵심자원의 졸부상은 이탈 이상의 여파가 있다. '인병마님' 이재원(손가락 골

절)을 시작으로 중심타자 한동민(정강이 골절), 내야수 채태인(왼구리 통증)과 김창명(어깨 부상), 외야수 고종욱(발목 염좌), 외국인투수 닉 킹엄(팔꿈치 통증) 등...

냉정히 말해 지금 SK 라인업에서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선수는 최정과 제이미 로맥뿐이다. 자연히 이틀만 거르면 쉽게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다.

창원 |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5할도 턱걸이... '우승 후보' 키움에 무슨 일이

'국대급' 1~4번 중 이정후만 제몫 브리검 부상 이탈·볼펜진도 난조 공수 모두 불안... 전력 재 정비 시급

예상보다 조금은 더딘 행보다.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키움 히어로즈가 초반에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다.

여러모로 악재가 겹친 영웅들이다. 키움은 개막 후 7경기에서 6승1패를 기록하며 순탄하게 시즌을 출발하는 듯했다.

그러나 외국인타자 테일러 모터의 부진과 야구 외적인 이슈가 주목을 끌면서 팀 내에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.

적으로 터지지 않았다. '국대대표급' 1~4번타자 중에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이는 3번으로 나서는 이정후뿐이다.

이 와중에 투수진의 들쭉날쭉한 컨디션도 발목을 잡았다. 1선발 제이크 브리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여파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친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했다.

서 말소됐다. 이외에도 에릭 요키시를 제외한 선발진은 모두 기록을 보이고 있고,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던 불펜투수들의 평균자책점은 치솟고 있다.

창원 |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스포츠동아 창간 12주년·프로야구 개막 '야구용품 타기 사은키트' 당첨자 발표

3347통 엽서에 담긴 감동...당첨자에 '선수용 배트·글러브' 보내드립니다



스포츠동아는 창간 12주년과 2020시즌 프로야구의 개막을 기념해 '야구용품타기 애독자사은키트'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

◀ 두산 최주환이 '야구용품타기 독자사은키트'에 참여한 독자들의 엽서와 편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. 사진제공 | 두산 베어스

신 분도 있었습니다. 키트 정답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주신 분들도 많았고,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정성스레 엽서를 꾸며주신 분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.

용 글러브와 배트 등 1인당 50만 원 상당(총 1000만 원 규모)의 야구용품을 드립니다. 글러브에는 당첨되신 분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.

Table with 2 columns: 이름 (Name) and 주소 (Address). Lists names and addresses of winners.